

한국불교학 발전 새로운 가능성 모색

한국불교학 한단계 레벨업

이덕진 씨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기고

'진심직설' 저자 정언선사

최연식(서울대 강사)

2년 전,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까지 보조국사 지눌의 저서로 인정받아 온 <진심직설>이 지눌의 저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던 최연식 씨가,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진심직설>의 저자는 중국 금대의 선승 정언(政言) 선사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주장의 근거는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 정언선사 탐방>의 탁본 자료다. 정언선사탑은 1188년

학문의 즐거움 중 하나는 새로움이다. 소재나 주제의 새로움,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해석, 통설을 뒤엎는 반론, 미답의 연구 영역에 대한 도전... 공동 주제 발표회를 포함 200편의 논문이 발표된 불교학결집대회에서 주제나 방법론상의 새로움이 돋보이는 논문들을 살펴봤다. 논문의 질적 우열은 절대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불교학자가 아니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논문들이다. <편집자>

주요논문으로 보는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정언선사의 행적과 사상 경향을 살펴본 최 씨는 <진심직설>의 첫부분에는 선종의 문헌으로서의 흔하지 않게 <성유식론>과 <성유식론 송가>가 인용되

중앙승가대 교수로 있는 정인 스님은 팔리어 낱전대장경 속에 들어 있는 '비구니 계승(Therigatha)'을 분석해 부처님 생전 당시 출가한 비구니들의 출가

비구니 계승서 본 출가동기

정인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 출가, ②자식의 죽음으로 인해 출가, ③천민의 신분에서 출가한 경우, ④타종교에서 불교에 귀의, ⑤생활고를 피하기 위해 출가, ⑥친척들의 죽음 때문에 출가, ⑦남편의 학대로부터 출가, ⑧나이가 많아 늦게 출가, ⑨늙음의 무상함 때문에 출가, ⑩부처님의 출가를 따른 친척들의 출가로 나날 수 있다.

16장 522계승으로 이뤄진 Therigatha에는 모두 70명의 비구니 이름이 나와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기가 도래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정보사회로 달려가고 있고, 학문은 더욱 세분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6개의 불교계 대학, 14개의 불교학회 그리고 10개의 불교계 연구소가 합심하여 개최하는 '한국 불교학결집대회'는 그 의미가 심장하다. 200편의 논문이 한꺼번에 발표되는 학술대회는 한국 역사상 그 전례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교리연구에만 치중했던 지금까지의 태도를 지양하고,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현실사회의 접목을 시도하려는

과 바람직한 종교교육 방안' 등이 주제나 접근방법이 새롭다. 박원준 교수의 '불교사상으로 본 판소리 심청가 연구', 박영의 교수의 'In Watermelon Sugar와 불교', 백원기 교수의 'Thomas Hardy의 시와 불교', 서혜숙 교수의 '에이츠와 회암사상', 최희섭 교수의 '엘리엇과 불교' 등의 논문은 불교학결집대회가 아니면 볼 수 없었던 논문 속에 속한다. 이번 불교학결집대회는 불교학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점이 아주 많았다. 첫째, 불교학과 타학문의 교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불교학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셋째, 불교학자들간의 교류의 가능성을 더 주었다. 넷째, 한국 불교의 축인 동국대와 비동국대 학자들간의 학제교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한국 인문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았다. 첫째, 북한

'진심직설' 보조 저술 아니다

에 세워진 중국 금대의 승려 정언선사의 모태로 현재 탁본만 남아 있다. 파손이 심해 읽을 수 없는 글자가 많긴 하지만 정언선사의 저술을 나열한 제4면 5행 윗부분에서 <진심직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최 씨는 밝혔다. 이어 <...탐방>과 다른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

어 있는데 이는 젊은 시절에 유식학을 공부한 정언선사의 행적과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또 <진심직설>에 다양한 선사들의 공안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도 송고(頌古)와 염고(拈古)를 각기 100편씩 지은 정언선사의 저술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면 경험에 따른 10가지 출가 유형

동기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비구 계승인 Therigatha가 외적인 자연 묘사와 자기 신앙의 고백적 성격이 강하다면, Therigatha는 내면적 경험 묘사로 인간적 감정이 풍부하다는 전제하에 비구니의 출가 동기를 10가지 유형별로 나눴다. 이에 따르면 ①부처님의

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은 불법이 '무상의 정가'임을 자각하여 깨달음이라는 순수한 동기에 의한 출가라고 밝혔다. 계승에 비해 비구니의 수가 적은 것은 한 비구니가 2개, 3개, 많게는 40계승까지 출가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집승은 74계승으로 엮여져 있다.

조선 명종조 승과 부활

김경집(진각종 총학연구실 연구원)

불교의 암흑기, 혹은 배불정책(排佛政策)으로 표현되는 조선시대에도 불교가 명맥을 이어온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김경집 씨는 왕실 신앙의 힘이나 민중들의 정서 속에 남아 있는 신앙의 잔영이라는 외형적 힘도 무시할 수 없지만, 불교계의 내재적 의식이 더 중요한 동인(動因)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 동인으로, 조선조 연산군과 중종조를 거치면서 폐지됐다 명종조에 잠시 부활한 승과 제도를 지목했다.

김 씨는 명종조의 승과 제도 부활이 기간은 십여 년에 불과하고 승과가 치러진 횟수도 몇 번 되지 않지만

역불 속 불교유지 動因

이 틈에서 자라난 불교계의 내재적 의식은 그 후 조선 사회에서 불교가 유지되는 동인으로 자리해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음성적으로 이어가던 불교가 양성적으로 세상에 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여기에서 배출된 인물과 그 후학들에 의해 계승된 선맥은 그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불교의 흐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이들에 의해 저술된 문집과 중요한 경론들의 사기(私記)는 상대적으로 다른 왕조에 비해 열악했던 학문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호탄불교에 대한 연구

한지연(동국대 박사과정 수료)

한지연 씨의 논문은 한국 불교학계에서 거의 연구 성과가 없었던 서역 불교, 그 중에서도 호탄 불교에 대해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호탄은 인도와 중국의 불교 교류에 있어 가교 역할을 했던, 서역의 남북 양로 가운데 남로를 대표하는 불교국가다.

이 논문에서 한 씨는 호탄 불교가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발전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불교 전래 그 시점부터 대승불교의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서역 불교가 부파→대승 불교로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는 연구 때문에 호탄 불교 역시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었다는 설명이다.

호탄불교 정체성은 '대승'

호탄 불교가 부파에서 대승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은 <출삼장기집>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소승행이 <대방광경>을 구하기 위해 서역으로 떠난 것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보이는 '소승학도'라는 말에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한 씨는 주사행이 호탄에 갔던 이유가 <대방광경>을 구하기 위해, 소승 불교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은 <대방광경>과 그 성격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기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호탄에 대한 적의적 표현의 일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법현의 저술을 보면 401년 호탄에 당도했을 때 이미 대승에 속하는 승려가 삼천 명에 이른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점을 봐도 소승 후 대승의 발전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와 불교적 상상력

홍신선(동국대 교수)

현대사에서 불교적 상상력과 세계 인식이 미치는 영향은 '불교사'라는 장르의 타당성을 넘어 이미 하나의 '당위'가 되고 있다. 홍신선 교수는 90년대 들어 이른바 '정신주의'란 이데올로기를 타고 등장한 불교적 시들은 '전통적 사상이란 명분론 때문만이 아니라 탈근대를 위한 대안 사상으로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홍 교수의 논거를 따라가 보면, 정신주의 시에 대한 부정적 담론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인들이 선(禪)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를 인식의 틀로 삼은 작품들을 생산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지훈은

불교사상 현대사에 활력

'현대사가 섭취한 것은 선의 사상 자체보다는 선의 방법의 적용'이라고 했다. 즉 선의 비논리성, 비약, 정중동이나 동중정의 미학을 현대사의 기법으로 적용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홍 교수는 오히려 기법보다는 세계 인식의 틀로서의 선(禪)이 주목했다. 또한 현대사의 창작 모티브로 작용하는 불교적 상상력은 연기설이나 윤회 사상을 밑바닥에 깔고 있고, 이는 불교적 상상력에 기반 정신주의 시가 단순히 정신의 해방이란 좁은 영역을 벗어나, 탈근대의 이데올로기와 만날 수 있는 대안 사상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리=권형진 기자

연구성과 공유·타학문과 교류 긍정적

총론 그친 연구·북한불교 언급없어 아쉬워 원효를 노장사상과 연계한 발상 주목할만

새로운 시도는, 지금까지의 한국 불교학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편의 논문이 모두 맘을 들린 흔적이 보이지만, 특히 주목되는 논문은 우선 김호성 교수의 '힌두교와 불교에 나타난 폭력/전쟁의 정당화 문제'이다. 최근의 테러사태와 팔레스타인 문제 모두 그 뒤에 종교갈등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논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해태 교수가 '노장과 원효'에서 원효를 노장사상과 연계한 발상도 주목할 만하다. 이 이외에도 이종표 교수의 '칸트와 붓다', 허인섭 박사의 '전산화된 고려대장경 2002(TK2002) 완성의 학술적 의미', 박학문 교수의 '장애인의 심리와 유식불교' 등도 일독을 권하고 싶다. 주제나 연구방법이 참신한 논문은 우선 최연식 박사의 <진심직설>의 저자 정언선사'가 있다. 기존의 입장에 반론을 펴는 그의 주장이 좋다. 이 이외에도 키츠카와 도모야기(齋木智孝)의 '일본 범상종의 형성 과 신라 유식학', 김형중 교보사의 '불교종립학교(중·고)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점

불교에 대한 연구가 한편도 없었다. 둘째, 학제간 연구에 대한 논문들이 대부분 총론에 그치고 구체적인 접근이 없었다. 셋째, 특정인물에 대한 경도가 심했다. 넷째, 기존에 발표됐던 논문의 축약이 너무 많았다. 이 문제는 불교학결집대회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속제도 있었다. 첫째,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어떻게 계속해서 보장 할 것인가 하는 속제이다. 결집대회에 발표하는 논문이 학술적 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수한 논문이 생산될까 하는 점이 우려된다. 자칫하면 일회용 잔치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발표주제를 연구자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속제도 남겨 주었다. 이 문제는, 주관하는 측에서 미리 1년 전쯤 주제 선정 제시하고, 발표자들이 그 범주 안에서 논문을 저술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요논문을 선정하여 영영하는 방법은 없을 까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다면 한국 불교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려대 강사>

부처님 마음! 아시아로 세계로!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

내사랑 부산! 시민연등축제

시민연등축제 상징물 점등식

- 일시: 5월 27일(음 3 20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부산역 광장
- 내용: ① 등, 등, 등 점등식
- ② 2002명이 만들어내는 '부처님 마음! 아시아로 세계로! 축복 점등'

부산발전기원 '3천명 참여정진'

- 일시: 5월 11일(음 3 29일) 오후 8시 ~ 12일(일) 오전 4시
- 장소: 부산역 광장
- 내용: 50여명의 스승과 500명의 불자들이 부산발전을 기원하는 3천명 참여정진

부산불교 합창제

- 일시: 5월 13일(음 4 2일) 오후 7시
- 장소: 문화회관 대강당
- 내용: 1,500여 합창단원이 함께 하는 찬불가 공연

시민문화축제

- 일시: 5월 12일(음 4 1일) 오후 2시 ~ 4시
- 장소: 부산역 광장
- 내용: 체험장, 연등놀이, 킴프 만들기, 놀이마당, 불지노래경, 풍물공연, 풍물소리, 징구와 민요불교무용, 시낭송, 어린이 찬불가, 헌금다례

불지노래경 참가신청: 5월 22일(목)까지 - 연악곡 50명

문의: 대안불방 부산지구 467-5241, 011-881-6376

연합대법회

- 일시: 5월 12일(음 4 1일) 오후 4시
- 장소: 부산역광장
- 내용: ① 부산발전기원 영신제 ② 3만 여명이 함께하는 연합대법회 ③ 부산발전을 기원하는 1,500명 합창단원의 대합창

제등행진

- 일시: 5월 12일(음 4 1일) 오후 6시 30분
- 코스: 부산역광장 → 부산진역 앞 → 부산불교중앙 → 범방골로터리 → 서면로터리

시민과 함께 (연식) 공연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연락처
불교수교 20주년 기념	4. 11	대동문공원	부산불교연합회	624-2207
부처님 오신날 기념	4. 14, 10. 10	초읍 야시장	범방아사회	898-2672
부처님 오신날 기념	4. 21, 10. 10	아이디어공간	범방아사회	898-2672
2002년 6월 20일, 21일, 22일	4. 25 ~ 5. 2	국립부산미술관	연화동	032-885-9111
2002년 6월 20일, 21일, 22일	4. 27 ~ 5. 2	부산광역시 1층 전시실	주사리 불교미술관	867-1515
인간 진보 운동	4. 28	사천문화회관	부산광역시	867-0501
연등놀이	4. 28	연등놀이	연등놀이	403-7077
연등놀이	4. 28	연등놀이	연등놀이	898-7111
연등놀이	4. 30,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67-0501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403-7077
연등놀이	5. 2, 11. 10	삼강사	삼강사	898-7111
연등놀이	5. 2, 11.			